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5년 5월 18일(일) 제1540호



2025 회복축제 '온전함'.

온전한 회복의 열쇠 '예수 그리스도'

2025 회복축제 '온전함' 1,200여 명 참석 기독교 상담 및 심리치유 전문가 40인 강의

온전한 회복의 유일한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였다. 온전함을 향한 회복의 여정에서 발견한 변하지 않는 진리가 바로 그것이었다.

2025년 회복축제 '온전함'이 막을 내렸다. 5월 14일(수)부터 16일(금)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과 선교관에서 '온전함'을 주제로 진

행됐다. 온누리교회 회복사역본부,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한국교회 상담사역네트워크가 공동주최했다. 성도 1,200여 명이 참석했다.

회복축제 '온전함'에서는 14일 '마음 돌봄', 15일 '정신 치유', 16일 '영혼 회복'을 주제로 기독교 상담 및 심리치유 분야 전문가들의 강의

가 이어졌다. 14일 박상미 교수 '상처 입은 내면 아이 치유', 이호선 교수 '21세기 핵심 정서와 치유적 상상력', 15일 채규만 교수 '신경과학, 심리학, 신학 및 영성을 통합한 상처와 외상치유', 고병인 교수 '동반 의존자:조정자(Codependent:Enabler)', 류경숙 교수 '사회성이 좋은 아이로 자라게 하려면', 16일 남윤영 박사 '우울, 불안과 평안(우울증, 불안장애를 가진 사람돕기)', 권수

영 교수 'AI 시대, 온전함의 회복이 더욱 필요한 이유'를 주제로 강의했다. 오후에는 풍성한 '선택 강의'가 이어졌다. 정신 건강, 정서적 치유, 건강한 부부 및 가족 관계, 교회 상담의 실제, 미디어 중독 문제 등을 주제로 이기원 목사, 오은규 목사, 정희성 목사, 정승철 목사, 하성희 목사, 김인선 장로, 김성진 장로, 박성덕 소장, 오화철 교수, 장석연 교수, 이현주 교수 등 전문가 40여

명이 강의했다.

특별 순서와 패널토의도 이어졌다. 14일 사랑채머, 15일 김주택 성악가, 16일 온사랑 합창단이 특선했고, 16일에는 패널토의를 했다. 조호영 목사 사회, 권수영 교수, 남윤영 박사, 이기원 목사, 조영진 목사가 패널로 참석했다. 16일 오후 열린 '금요회복집회'에서는 조영진 목사가 강의했다<관련 기사 3면>.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세상 끝에 웃음꽃을 피워주세요'

5월 24~25일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 약정행사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 약정행사가 '세상 끝에 웃음꽃을 피워주세요'를 주제로 5월 24일(토)과 25일(일) 열린다. 이날 온누리교회 모든 예배에서 나눠주는 정기후원 약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NGO 더멋진세상 홈페이지(abetterworld.or.kr)에서 참여하면 된다.

NGO 더멋진세상은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가난과 질병,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섬기는 국제개발 NGO다. 하나의 마을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더멋진마을조성사업'과 긴급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인도적지원사업' 등을 하고 있다<관련 기사 5면>.

NGO 더멋진세상 창립 15주년 기념 '더멋진 콘서트'와 '더멋진 사진전'도 열린다. 더멋진 콘서트는 5월 22일 오후 7시 30분 양재온누리교회 기쁨홀, 더멋진 사진전은 5월 21일(수)부터 31일(토)까지 양재온누리교회 원형홀에서 이어진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법조인맞춤전도집회 'Justice For You'

6월 16일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

법조인을 위한 맞춤전도집회 'Justice For You'가 막 오른다. 6월 16일(월) 오후 6시 45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된다. 법조인 맞춤전도집회 'Justice For You' 참가신청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나 각 캠퍼스 로비에 설치되는 홍보부스에서 하면 된다. 신청서에 초대 대상자인 법조인의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참가신청 1차 마감은 5월 22일(목) 오후 5시다. 초대대상자를 위한 '요청자기도모임'이 5월 26일(월)과 6월 2일(월) 오후 7시 30분 서빙고 두란노홀에서 열린다.

문의: 카카오톡플러스친구 '저스티스포유'

국제 의료 플랫폼 NGO '메디엑세스' 창립축하예배

국제 의료 플랫폼 NGO '메디엑세스(MediAccess)' 창립축하예배를 5월 24일(토) 오후 5시 양재온누리교회 기쁨홀과 화평홀에서 드린다. 온누리교회 소속 의료인과 의료선교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관련 기사 4면>.

창립축하예배는 이무송 집사 사

회, 연합침례교회 특수, 이재훈 위임목사 설교, 메디엑세스 미니 다큐 상영, 김병순 대표 인사, 박준범 회장(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회), 이인용 장로(당회서기) 축사, 윤형주 장로(가수), 신텔라 자매(성악가) 특수, 강부호 목사 축도 등의 순서로 이어질 예정이다. 문의: 02-570-7110

2025 마리아행전 '평강의 복'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여성기도부흥운동 '마리아행전'이 오는 6월 11일(수)부터 13일(금)까지 '평강의 복' (시 29:11)을 주제로 막 오른다. 오전 10시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서 진행된다. 6월 11일과 12일 서빙고와 양재 성도들은 양재 사

랑홀, 캠퍼스 성도들은 소속 캠퍼스 본당에서 집회에 참가하면 된다. 6월 13일에는 양재 사랑홀에 모여 연합기도회를 한다. 참가를 원하는 성도들은 각 캠퍼스 로비에 마련되는 안내데스크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4만 원. 문의: 02-3215-3667

Come, Lord Jesus!
Revelation 22:20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이삭의 가정은 역기능 가정이었습니다. 역기능 가정이란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실 때 계화하셨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가정입니다. 이삭의 가정은 서로 속이는 일로 가족관계가 깨어지는 역기능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27장에서 7번의 대화가 나오는데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머지않아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에서를 불러 축복하고자 합니다. 에서에게 자신이 즐기던 요리를 만들어오게 하는데, 그 말을 엿들은 부인 리브가가 자신이 더 사랑하는 야곱에게 그 일을 시킵니다. 야곱을 에서로 변장시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라고 합니다. 야곱은 두려워하며 주저합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질 테니 시키는 대로 하라고 밀어붙입니다. 야곱은 엄마가 시키는 대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에게 주고자 했던 축복을 가로챍니다. 뒤늦게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 분노하고 흥분하지만,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리브가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 도망치게 합니다. 이것이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삭의 가정에 나타난 역기능

이삭의 가정에 나타난 첫 번째 문제는 ‘부모의 편애’입니다.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한 게 분명합니다. 더 사랑스러운 자녀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어느 한 자녀만 노골적으로 편애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한 편에 사랑의 결핍을 가져오는 것이 역기능 가정의 현상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삭은 축복을 줄 때도 자기 입에 맞는 고기를 요구했습니다(2~4절). 에서를 축복하고 싶은 것은 분명한데,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나를 위해’, ‘내가 먹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삭은 에서를 축복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부모의 조건적인 사랑은 자녀에게 반드시 악영향을 미칩니다. 어릴 때일수록 그렇습니다. 부모의 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모든 것을 거래로 생각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기초가 된 사람만이 자존감이 올바르게 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영적 분별력 결여’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늘 조급합니다. 이삭은 자신이 곧 죽을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창세기> 27장 2절과 4절을 보면 죽음이라는 단어를 반복하는데, <창세기> 35장을 보면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40년을 더 살았습니다. 이것이 조급함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은 늘 사소한 것에도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며 삽니다. 이삭의 영적 분별력이 부족했다는 것이 또 나타납니다. 야곱이 염소털로 위장하고 자신에게 왔을 때 분별을 못했습니다. 의심은 했습니다. 두 번이나 에서인지 확인하는 질문을 하고 직접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가정의 리더십은 경제적인 공급만이 아닙니다. 영적 분별력이 가정의 책임입니다. 가장이 영적 분별력이 부족하면 정말 중요한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게 되는데, 그게 뭐니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관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뜻에 대한 무관심과 불순종

이삭의 가정에서 일어난 역기능의 문제는 일반 가정의 문제와 다른 차원입니다. 그 가정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이 택하신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에 쓰시려고 택한 가정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한 것은 편애를 넘어서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관심과 불순종입니다.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에서가 반드시 장자권을 이어가야 한다는 고집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사회 문화가 그랬을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문화를 뛰어넘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문화, 내가 선호하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삭의 가정에는 ‘대화의 단절’이라는 역기능도 나타납니다. <창세기> 21장에 여러 대화가 나오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한 번의 대화에 꼭 두 사람만 나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대화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1~4절 이삭과 에서, 5~17절 리브가와 야곱, 28~29절 이삭과 야곱, 30~40절 이삭과 에서, 41~45절 리브가와 야곱, 그 후에 리브가와 이삭이 대화합니다. 둘씩만 대화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가족구성원의 대화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이삭과 리브가의 대화 단절입니다. 부부의 대화 단절은 반드시 자녀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리브가가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한 것을 엿들었습니다. 리브가가 이삭과 대화하지 않고, 다급한 나머지 야곱을 불러서 남편을 속이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도 잘못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보면 리브가가 평소에 남편을 무시하고 살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남편이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고, 맨날 에서에게 고기를 잡아오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속이 터졌을 수도 있습니다. 불안해하는 아들 야곱에게 확신까지 줬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행한 죄값을 담당해야 했습니다. 부부의 대화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가족구성원 모두가 깨어졌습니다. 거짓의 대가를 가족구성원이 담당해야 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는 아버지가 말로 하는 축복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일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당시는 말의 힘을 믿었고,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축복의 말이 인생에서 중대한 역할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말의 힘을 다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처럼 가정에서 어떤 말을 주고받는지 세심히 살펴야 하고, 가장 말조심해야 될 영역이 가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을 해야 합니다.

역기능 가정이 회복, ‘예수님의 십자가’

가정에서 일어난 거짓과 속임수는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한 가정에 들어온 거짓은 점점 허의 거짓이 마음의 거짓으로, 조상의 거짓이 자손의 거짓으로 강화됩니다. 결국 역기능 가정이 회복하는 길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모든 허물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길 밖에 없습니다. 역기능 가정에서 겪는 아픔은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는 통로입니다.

초대교회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의 아버지 파트리시우스는 알코올 중독자요, 폭력적인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록>에서 아버지를 회상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창조주이신 주님을 잊게 하고 주님 대신에 그분의 피조물을 사랑하게 하는 술 취함을 좋아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래쪽으로 열등한 것을 지향하는 비뚤어진 의자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포도주에 취해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기에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가 1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부정적인 기억밖에 없어서 젊은 시절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수사학자가 되기 위해서 암브로시우스를 만났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아버지를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아버지가 갓난아이를 품에 안듯이 나를 안아주고 가장 훌륭한 전통을 따라 나를 소중히 여겨주었다.”

새로운 하나님의 가정에서 아버지 됨을 경험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가정은 깨어진 상처 속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러셀 무어가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책의 결론에서 귀한 글을 남겼습니다.

“가족은 복음이 아니다. 만일 가족이 삶의 궁극적 의미의 원천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가족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당신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길 바랄 것이다. 그러면 당신이 겪었던 역기능 가정이나 당신을 버린 배우자 또는 머나먼 반향의 나라로 떠나버린 자녀가 당신의 삶을 망쳤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십자가의 삶은 우리를 자유케 하여 가족을 이상화하지도 않고 악한 것으로 여기지도 않게 한다. ... 당신의 가족은 당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당신을 이끌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두려워할 이유가 아니다. 당신 앞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은 본향으로 이어진다. 빛은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빛나며,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지금 어떤 폭풍과 싸우고 있든 당신은 살아남을 것이다.”

역기능 가정이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 때 주어진 영광과 생명의 빛이 있기에 가정으로부터 모든 것을 기대할 필요도 없고, 채워줄 수도 없는 그 가정에서 오히려 영원한 생명과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가정의 역기능이 십자가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2025 회복축제 온전함

온전함을 향한 회복의 여정!

‘마음 돌봄’, ‘정신 치유’, ‘영혼 회복’

“그 무거웠던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깊은 내면의 상처와 마주했으며, 메말랐던 영혼에 생기가 불어 넣어졌다.”
2025 회복축제 ‘온전함’ (이하 회복축제) 참가자들의 공통적인 고백이다. 그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장(場) 회복축제가 지난 5월 14일(수)부터 16일(금)까지 진행됐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음 돌봄’, ‘정신 치유’, ‘영혼 회복’을 주제로 온전함을 향한 회복의 여정을 걸었다. 상처 입은 개인과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무너졌던 삶의 영역을 다시 세우는 그 놀라운 현장에 다녀왔다.
/ 홍하영 기자, 박지혜 기자



2025 회복축제 ‘온전함’에 참여한 성도들이 손을 들고 찬양하고 있다.

첫째 날 ‘마음 돌봄’

회복축제 첫날, 집회 시작 전부터 참가자들의 표정에 설렘과 기대가 가득 묻어 있었다. 모두가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을 돌아봤다. 그 ‘마음 돌봄’이 온전한 회복의 문을 두드렸다. 회복을 향한 간절함은 찬양으로 터져 나왔다. 참가자들이 손을 높이 들고 눈물 흘리며 찬양하고, 기도했다. 김지현 장로의 대표기도와 발달 장애인 오케스트라 사랑채퍼의 특순은 감동에 감동을 더했다.

첫 번째 강사는 박상미 교수였다. ‘상처 입은 내면 아이 치유’를 주제로 자신의 경험을 숨김 없이 털어냈다. 그 고백이 참가자들에게 큰 울림과 감동을 줬다. 박 교수는 “상처 입은 내면 아이가 평생 우리 안에 살면서 삶과 관계에 깊이 영향을 미친다”면서 “그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영혼의 아픔을 하나님 안에서 내면 아이와 마주할 때 비로소 온전히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강사는 이호선 교수였다. ‘21세기 핵심 정서와 치유적 상상력’을 주제로 강의했다. 특유의 유머와 재치로 무거운 주제를 활기차

게 풀어냈다. 이 교수는 “21세기를 사는 사람들 모두가 정서적 아픔과 불안을 겪고 있다”면서 “하나님 안에서 ‘치유적 상상력’을 발휘해 더 나은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후에는 선택강의가 이어졌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상처 입은 치유자’, ‘미디어중독’, ‘상담사를 위한 다문화 감수성’, ‘트라우마와 기독교상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하나님의 형상 회복’ 등을 주제로 강의했다.

정명숙 성도(한국기독교상담심리치료학회)는 “나를 먼저 알고, 돌보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남을 이해하고, 돌보고, 사랑할 수 있음을 새삼 기억하며 나의 마음 돌봄에 힘을 쏟을 것”을 약속했다.

둘째 날 ‘정신 치유’

둘째 날, 김이준 장로의 대표기도와 김주택 성악가의 특순이 집회의 문을 열었다. 첫 번째 강사는 채규만 교수였다. ‘신경과학, 심리학 및 영성을 통합한 상처와 외상치유’를 주제로 강의했다. 채 교수는 “모든 외상 문제는 신경과학, 심리치료, 성경적 관점, 영적 회복을 통합해

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외상 극복 경험이 하나님께 이르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강사는 고병인 소장이었다. ‘동반의 존자:조장자(Codependent:Enabler)’를 주제로 강의했다. 고 소장은 “동반의존자와 중독자가 서로 악순환하며 계속 문제가 일어난다”면서 “이 문제에 올바르게 대응하기 위한 교회와 국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강사는 류경숙 박사였다. ‘사회성이 좋은 아이로 자라게 하려면’을 주제로 강의했다. 류 박사는 “아이의 사회성 발달에는 애착과 자존감, 유능감 형성, 전문적인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결국 하나님과 교회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야 사회성 좋은 아이를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둘째 날 오후 강의에서는 ‘세상을 신뢰하는 아이,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는 법’, ‘온전함을 향한 한 걸음: 애도와 돌봄’, ‘마음 습관, 이해하고 바뀌보기’, ‘이혼자 치유와 상담’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졌다.

하정우 성도(서빙고온누리교회)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회복이 무엇이고, 어떻게 문제를 회복하는지 그 방법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셋째 날 ‘영혼 회복’

회복축제 마지막 날 집회는 최호림 장로의 대표기도와 온사랑합창단의 특순이 문을 열었다. 첫 강의를 남윤영 교수가 ‘우울, 불안과 평안(우울증, 불안장애를 가진 사람 돕기)’을 주제로 했다. 남 박사는 “인간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에 인간의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온전함을 향해 함께 달리는 좋은 치료사이자 통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강의는 권수영 교수가 ‘AI시대, 온전

함의 회복이 더욱 필요한 이유’를 주제로 했다. 권 교수는 “AI를 잘 활용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온전함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성육신의 임상적, 일상적 실천이 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정서적, 정신적, 영적인 온전함’을 주제로 패넌토의도 이어졌다. 조호영 목사가 사회를 보고, 조영진 목사, 남윤영 교수, 권수영 교수, 이기원 목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패넌토의에서는 성도들의 고민을 상담하고,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제시했다. 조영진 목사는 “온누리교회 회복축제가 교회와 학회 등을 연합하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며, 한국교회가 더 건강해지도록 돕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윤영 박사는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도록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수영 교수는 “교회가 이웃과 성도의 마음을 돌보는 치유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고, 이기원 목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그 열정이 식지 않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더 건강해지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오후 선택강의에서는 ‘심리학과 신학을 통한 기독교상담의 온전성’, ‘하나님 사랑의 실천: 경청과 공감’, ‘부모참여 놀이아동상담’, ‘성경적 상담과 마음 지키기’, ‘지혜로운 우울증 관리’, ‘상한 욕구, 분노와 성경적상담’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졌다. 회복축제의 피날레는 ‘금요회복집회’가 장식했다. 조영진 목사가 메시지를 전했다.

문창경 집사(거룩한빛광성교회)는 “이번 회복축제에서 온전한 회복은 예수님처럼 상처 있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에서 시작됨을 알게 됐다”면서 “온전한 회복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새삼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이재훈 위임목사의 목회서신

온누리교회의 새 가족 NGO ‘메디엑세스’

국제개발 보건의료 사업의 새로운 모델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새로운 가족을 소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 온누리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의료전도팀으로 시작해 지금까지 꾸준히 활동해 오던 CMN(Christian Medical Network, 의료선교회)이 ‘메디엑세스(MediAccess)’라는 이름의 글로벌 보건의료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2세기 말, 안토니우스 역병이 창궐했을 때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했던 로마인들은 환자를 쫓아내거나 도망갔지만,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기꺼이 무릅쓰고 하나님의 형상인 병자들을 돌보면서 무수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우리나라 근대 의료 발전 역시 여러 의료 선교사의 헌신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광혜원(제중원) 설립을 주도한 호러스 알렌 이래 해론, 빈톤, 하디, 오웬, 랜디스, 에비스, 스크랜턴, 맥길, 하워드, 셔우드, 존슨, 브라운 등 수많은 의료 선교사가 전국 각지에 병원을 설립하고 의학교육과 공중보건, 구제사업에 힘썼습니다. 특히 남편 제임스 홀과 함께 평양 등지에서 의료 선교를 했던 로제타 셔우드 홀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어 남편과 딸을 양화진에 묻었지만,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와 인천간호보건전문대학을 세웠습니다. 아들인 셔우드 홀도 한국 최초의 결핵 전문병원과 결핵요양소를 세웠습니다. 이들의 헌신은 우리나라 근대 의학의 도입, 의사와 간호사 양성, 전염병 방역, 공중위생 교육 등 한국 사회와 의학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온누리교회는 이 땅을 위해 목숨을 바쳐 대를 이어 헌신한 믿음의 선진들의 본을 따라 국제개발 NGO인 ‘더멋진세상’을 통해 식수, 교육, 농업, 보건, 의식 개선 사업 등 총체적으로 접근하며 ‘더 멋진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번에 창립하는 NGO ‘메디엑세스’를 통해서 보건의료분야에 집중해서 의료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나라와 지역의 경계를 넘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선교사들의 든든한 동역자

최근 일련의 사건들로 대한민국 의료계가 위기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의료시스템을 가진 나라입니다. 한 나라의 의료시스템은 국가의 행정 체계, 의료계의 운영 수준, 의료인의 기술과 능력 등 여러 요소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작동



**“NGO 메디엑세스는 모두에게 열린 플랫폼입니다.
누구라도 부담 없이 문을 두드리 주십시오.
메디엑세스와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메디엑세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십시오.”**

할 때 발전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중에서도 의료인의 기술과 능력이 가장 탁월한 나라입니다.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도 우리나라 의료인들의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의료진 중에서도 온누리교회 CMN에 속한 의료진들은 사명감과 열정이 그 누구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악이 횡행하는 타락한 세상에서 자국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무한경쟁은 분쟁을 가져오고, 크고 작은 전쟁의 소식들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난민의 숫자는 점점 증가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도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어려움을 겪는 지구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의료지원’ 일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의료선교팀이 사랑의 손길로 치유를 베푸는 것은 120여 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에게 진 빚을 갚는 일이 될 것입니다.

CMN은 그동안 동남아에서 아프리카까지 세계 곳곳의 선교지를 다니며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작년까지 CMN 해외 활동을 추산해 봤더니 진료 활동이 202회, 치료

받은 환자 숫자가 167,600명이었습니다.

메디엑세스는 CMN의 활동을 그대로 이어 받아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현지의 필요에 맞춘 전문적이고, 합법적인 활동으로 의료사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NGO 메디엑세스는 선교사님들의 든든한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

NGO 메디엑세스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

대한민국 2025년 ODA(공적개발원조) 예산이 6조 5천억 원 정도입니다. 그중에서 보건의료분야 지출이 13~14%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1조 원에 가까운 금액을 우리나라가 해외보건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OECD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회원국 중에서 15번째로 많은 ODA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예산이 더 증가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더 많은 예산과 의료진이 해외를 향해 뻗어 나갈 것입니다. 가장 많은 선교사를 해외로 보낸

대한민국이 이제는 가장 많은 의료진을 해외로 보내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NGO 메디엑세스는 시대의 부름에 응답해서 보다 준비되고 헌신된 의료진들을 해외로 보내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의 청지기인 우리가 국가 예산의 선한 청지기로도 부름을 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여러 의료 NGO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NGO, 의료진을 파견하는 NGO, KOICA(한국국제협력단)의 기금을 지원받아 프로그램 사업을 수행하는 NGO도 있습니다. 제가 의료 전문가가 아니지만, 여러 의료 NGO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소식을 들으면서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있습니다. 모두 훌륭한 의료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헌신과 열정도 있으나, 각 기관을 연합시키는 플랫폼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각 기관의 노하우와 정보들을 교류하고 활용하면 더 큰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아쉬움이었습니다.

NGO 메디엑세스 설립과 관련된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저에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의료진들, 의료기관들, 의료 관련 업체들이 NGO 메디엑세스를 오가며 의료적 도움이 절실한 이들을 위한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의료활동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NGO 메디엑세스와 연결된 모든 주체를 하나로 묶어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에서 국제개발 보건의료 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NGO 메디엑세스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때를 위해 우리에게 모든 역량을 허락하시고, 준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메디엑세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통로가 될 거로 기대합니다.

NGO 메디엑세스는 모두에게 열린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누구라도 부담 없이 NGO 메디엑세스의 문을 두드리 주십시오. 협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십시오. NGO 메디엑세스가 성장하도록 보살펴 주시고, 초심을 잃고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NGO 메디엑세스가 세계를 향한 예수님의 손발이 되어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NGO 메디엑세스의 창립을 축하합니다.



창립축하예배
참석 등록



메디엑세스
카카오톡 채널

1. NGO 더멋진세상과 함께해야 하는 이유

그들을 만나면 상상도 못 한 ‘변화’가 생긴다!

5월 24~25일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 약정식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 22명당 1명에게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만큼 위기 앞에 놓인 이웃들이 많다. 교회와 성도들이 그들과 함께 울고 웃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NGO 더멋진세상이 쉽지가 않다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약정식이 5월 24일(토)과 25일(일)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서 열린다. 지구촌 이웃들을 돕는 절호의 기회다. 우리가 NGO 더멋진세상과 함께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지구촌 이웃들에게 찾아온 상상도 못 한 변화, 바로 그것 때문이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재난과 재해, 가난과 질병 등으로 신음하는 지구촌 이웃들이 NGO 더멋진세상을 만나면 상상도 못 한 변화를 경험한다는 말이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다. 국내외에서 NGO 더멋진세상을 만난 수많은 이들이 그것을 고백한다.

지난 3월, 경북 산북 피해지역에서 만난 한 주민은 눈물을 쏟아내며 이렇게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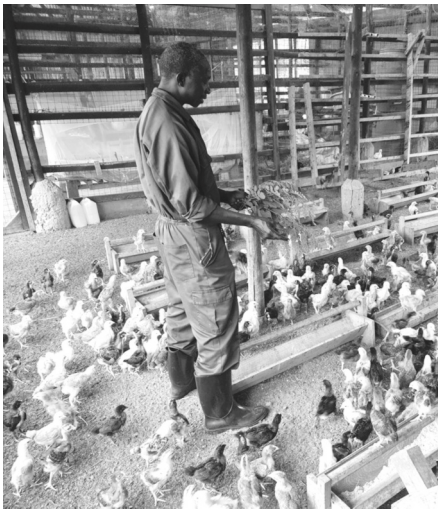
“눈앞에서 모든 것이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고, 전기와 물마저 끊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막막하고 답답한 심정은 겪어보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멀리까지 찾아와 ‘그래도 끼니는 챙겨야 한다고’, ‘어떡하면 좋냐’고 함께 물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 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었는데 그들이 NGO 더멋진세상이라고 했습니다. 허기진 배를 채워주고, 허탈한 마음을 다독이는 그 사람들 덕분에 기운 낼 수 있었습니 다.”

레바논에 거주하는 시리아 난민들도 NGO 더멋진세상을 만났다. 그리고 상상도 못 한 변화를 경험했다. 시리아 난민 씨드라 따르끄 학생(12살)의 말이다.

“전쟁, 피난, 떠남과 슬픔... 제게 남은 것은 아픔과 슬픔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공부요? 친구요? 저에게 두 번 다시 없을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NGO 더멋진세상이 바로 그걸 선물해줬어요. ‘조이플센터’에서 다시 공부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노는 행복을 선물해줬어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큰 행복이에요.”

난민 아동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도 엄청난 변화였다. 생각지도 못한 그 변화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랍어 교사 하나 바다위 씨의 고백이다.

“전쟁으로 문을 닫았던 학교를 다시 운영한



▲ 우간다 남수단 난민 자립을 위한 양계사업.
▶ 우간다 남수단 난민을 위한 식수사업.
▶ 레바논 시리아 난민 아동을 위한 ‘조이플센터’.

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줄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 은혜로 학생들을 다시 만나고, 함께 공부하면서 더 나은, 더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신앙과 교육의 터전을 마련해준 NGO 더멋진세상에게도 깊이 감사합니다.”

그 아름다운 변화의 중심 ‘NGO 더멋진세상’

그 아름다운 변화의 중심에 NGO 더멋진세상이 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가장 먼저 달려가, 가장 필요한 것을 전하는 사역을 ‘인도적 지원사업’이라고 한다. NGO 더멋진세상의 주력 사업이다. NGO 더멋진세상의 인도적 지원사업은 크게 네 영역으로 구분된다. ‘긴급구호’, ‘조기복구’, ‘위험경감’, ‘난민지원’이 그것이다.

‘긴급구호’는 재난과 재해를 당한 이들에게 가장 먼저 달려가는 사업이다. 시급하게 필요한 도움을 먼저 제공하고, 그다음에 ‘조기복구’ 사업으로 전환한다. 피해를 본 이들이 다시 일어서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사역이다. ‘위험경감’ 사업은 질병 예방을 위한 교육과 의료지원, 식수시설 개선사업 등 그 영역이 매우 포괄적이다. 일차적으로 시급한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이차적으로 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해서 스스로 안전한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다. ‘난민지원’ 사업은 전쟁이나 분쟁 등으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빼앗긴 이들을 직접적으로 돕는다. 단기적인 대응부터 난민들이 온전한 회복과 자립을 하도록 돕는 데 때까지 단계적으로 접근한다. 인도주의 원칙인 인도성(Humanity), 중립성(Neutrality), 공정성(Impartiality), 독립성(Independence)이 난민사업의 핵심



가치이다.

교육부터 자립, 선교와 복음화

NGO 더멋진세상의 사역에는 장애물이 없다. 국내외도 가리지 않는다.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거기가 어디든 달려간다. 그만큼 발 빠르고, 활동 반경이 크고 넓다.

NGO 더멋진세상의 이 아름다운 섬김은 철저히 성경 말씀을 따른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신 10:18).

이 말씀이 NGO 더멋진세상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이 말씀을 열방에서 실현해내고 있다. 무엇보다 NGO 더멋진세상의 모든 섬김은 단순한 물질 지원 차원을 완전히 넘어선다. 궁극적으로 선교의 기회를 만드는 게 목적이자 목표이다. 재난과 재해, 가난과 질병으로 신음하는 거의 모든 나라가 자유롭게 복음을 접할 수 없거나 접하더라도 개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NGO 더멋진세상의 모든 섬김은 교육부터 자립, 선교와 복음화를 목표로 설정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NGO 더멋진세상을 만나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가능성도 커진다. 이보다 귀하고 복된 변화를 도모

하는 NGO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가 어렵다.

특히, 2016년 시작한 레바논 시리아 난민 아동을 위한 기초교육지원사업의 열매가 풍성하다. 현지 NGO 필라델피아자선기구와 협력해 ‘조이플센터’를 열었다.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서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이 다시 공부하도록 돕는 배움 터이다. 조이플센터는 아이들에게 희망도 선물하고 있다.

NGO 더멋진세상은 아프리카에서도 귀한 열매를 맺고 있다. 5개 마을에 태양광 급수시설을 설치했고, 양계사업 등 주민들의 소득 창출과 지역 개발에 힘쓰며 자립을 돕고 있다. 튀르키예 지진 피해지역에서는 긴급구호뿐 아니라 방과후 교실과 심리상담실을 운영하며 이재민의 정서적 회복과 생계 회복을 함께 지원했다.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도 큰 위로와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 순간에도 재난과 재해, 가난과 질병의 고통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만큼 고통받는 이웃들이 많다. 아서 그들이 NGO 더멋진세상을 만나서 상상도 못 한 변화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우리도 NGO 더멋진세상의 여정에 함께하자! NGO 더멋진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껏 후원하자!

문의: 02-2271-2246

1. 두란노아버지학교가 걸어온 30년 2. 두란노아버지학교가 걸어갈 30년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두란노아버지학교의 태동과 그 엄청난 열매



2009년 나가랜드 아버지학교 1기 세족식(왼쪽), 2024년 강원지역리더십 간담회(오른쪽).



두란노아버지학교가 올해 창립 30주년이 다. 경제적 책임만이 가정의 역할이라고 믿으며 앞만 보고 달리느라 무너진 이 시대 아버지들의 성경적 권위와 역할, 정체성을 되찾고,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는 사명을 목표로 설립된 두란노아버지학교는 한국 사회에 깊은 울림을 던지고 있다. 지난 30년, 두란노아버지학교가 내딛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쓰였다. 그 무뎠던 아버지들이 눈물을 흘리며 아내와 자녀들에게 사랑을 고백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는 그 아름다운 구호를 가정에서 실현해냈다. <온누리신문>에서 그 눈부신 사명을 감당하는 두란노아버지학교 창립 30주년을 축하하며 그들이 걸어온 30년, 걸어갈 30년을 2회에 걸쳐 조명한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가정의 질서도 사라졌다. 밖으로 걸도는 아버지들의 방향도 이어졌다. 세상 문화에 취하고, 일과 술에 취해 비틀거렸다. 이혼율이 급증하고, 부모와 자녀들의 갈등이 표면화했다. 성적 타락을 비롯한 일탈도 계속됐다. 그대로 두면 이 시대 아버지들이, 그들이 꾸린 가정이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밖에 없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준 빛이 바로 ‘두란노아버지학교’다. 이 시대 아버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성경적 권위와 역할, 정체성을 되찾고, 가정을 바로 세우고, 자녀들을 위해 더 좋고,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역할을 두란노아버지학교가 했다. 이 놀라운 변화가 한마디 고백에서 시작됐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이 보석 같은 고백은 세대와 지역, 인종을 넘어 국내 74개 지부, 국외 78개 국가로 뻗어나가고 있다.

고개 숙인 아버지들과 함께

1997년, 두란노아버지학교 초창기에 김정현 작가의 소설 <아버지>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 덕분에 아버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급증했다. 그리고 IMF 외환위기가 한국 사회를 강타하며 ‘고개 숙인 아버지’라는 표현이 유행처럼 번졌다. ‘한번 직장은 영원한 직장’이라 믿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일에만 몰두하며 가족들에게 무심했던 아버지들이 가정 밖으로 내몰렸다. 서울역으로, 영등포역으로 내몰린 아버지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이 시대 아버지들의 회복이 절실하고 또 절실했다. 그때 두란노아버지학교가 빛을 발했다.

2000년이였다. 공영방송 KBS의 ‘추적 60분’이라는 프로그램 제작팀이 두란노아버지학교에 연락했다. 이 시대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내몰리는 원인과 심각성,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당시 김성목 두란노아버지학교 본부장이 필요한 자료들을 챙겨주면서 일산동

안교회에서 진행 중이던 두란노아버지학교를 취재해보라고 권유했다. 그 방송에서 두란노아버지학교 현장 영상이 20여 분 송출되었다. 남성 시청자가 주를 이루던 프로그램이었기에 영향력이 상당했다. 수많은 아버지가 참회와 회복의 눈물을 흘렸다. 전국 각지 교도소, 군대, 기업, 관공서, 학교 등지에서 ‘두란노아버지학교를 진행해 달라’는 요청이 쇄도했다. 두란노아버지학교가 열릴 때마다 100명이 넘는 지원자들이 몰렸다. 두란노아버지학교는 일회적인 프로그램이나 세미나에 머무르지 않고, 아버지와 가정의 온전한 회복을 도왔다.

두란노아버지학교에 참가한 아버지들이 변하니 가족들도 변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고개 숙인 아버지들을 부둥켜안고 울고, 다시 손을 내밀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는 구호가 가정에서 실현됐다.

“두란노아버지학교는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

두란노아버지학교는 전 세계로 뻗어나갔다. 세계인터넷선교협의회(SWIM, 전영수 이사장)가 지난 2017년부터 튀르키예로 피난 온 시리아 난민으로 구성된 현지 교회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그들 스스로 복음을 전파하도록 생계를 지원하고, 사역의 필요를 돕는 선교를 하고 있다. 그런데 현지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뜻하지 않은 곳에 있었다. ‘매 맞는 아내와 가정의 불화’가 그것이었다. 세계인터넷선교협의회(SWIM)에서 이 문제 해결을 고민하는 현지 교회에 두란노아버지학교를 소개했다. 그렇게 2018년 튀르키예 현지 교회에서 두란노아버지학교가 열렸다. 그리고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오죽했으면 세계인터넷선교협의회(SWIM) 전영수 이사장은 “두란노아버지학교는 난민선교와 중동선교에서 핵심적인 돌파구”라고 했다.

그런데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이하 코로나19)이 두란노아버지학교에 위

기를 가져왔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2년 반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계속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땅끝까지 가는 아버지운동’이라는 두란노아버지학교의 본질을 되새기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 줌(Zoom)을 이용한 비대면 온라인 두란노아버지학교를 열어 더 많은 아버지와 마음을 나눴다. 지금은 다시 현장에서 두란노아버지학교가 열리고 있다. 특히 3040 젊은 세대 아버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활기를 띠고 있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현지인 두란노아버지학교 3기를 수료한 위스샘 캄모우 형제의 간증이 두란노아버지학교는 멈출 수 없는 사명임을 새삼 깨닫게 했다.

“두란노아버지학교는 제 인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두란노아버지학교는 나에게 계속 세상 방식으로 살 것인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 것인지 결단하도록 하는 인생의 기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인 ‘남성들의 수다’

두란노아버지학교는 5주 과정이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으로 아버지들의 성경적 권위와 역할,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가정으로 거듭나도록 돕는다. 그중에서 ‘조별 나눔’과 ‘전체 나눔’이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어디서 속내를 쉽게 드러내지 못했던 이 시대 남성들이 ‘아버지’라는 공통의 이름으로 모여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이다. ‘남성들의 수다’라고도 불리는 나눔 시간에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공감과 위로하고 울고 웃으며 ‘형제애’를 경험한다. 함께 ‘좋은 아버지’로 성장하는 희망을 품는다.

두란노아버지학교의 특별함은 섬기는 헌신자들이 ‘아버지’라는 점이다. 아버지와 가정의 회복을 위해 사회적 지위나 나이에서 완전히 벗어나 서로를 “형제님”이라 부르며 섬긴다. 두란노아버지학교 선배이자 같은 아버지로서 아름다운 아버지의 길을 조명한다. 최근 두란노아버지학교를 수료한 한 형제는 함께 삶을 나누면서 진짜 자기를 발견했다고 털어놨다.

“아내와 갈등이 깊어질수록 저는 작아졌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절망하고 있을 때 두란노아버지학교를 만났습니다. 때로는 비슷한 문제로 힘들어하고, 때로는 다른 문제를 가진 형제님들과 삶을 나누고, 공감하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짜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제야 ‘아내는 공감받기를 원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감’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여기고, 아내의 마음에 공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울 정도로 관계가 빠르게 회복됐습니다”

문의: 02-2182-9100

온누리세계관학교 특집

복음의 관점으로 다시 보는 영화 이야기

교회에서 사순절 기간에 ‘미디어 금식’을 실천하는 모습을 본다. 그러면서 미디어가 정말로 금식이 필요할 만큼 우리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았음을 실감한다. AI의 폭발적인 기술 발전 이전의 4차 산업혁명은 영상 혁명이 핵심이었다. 방송사 주도의 TV 채널 의존적 영상 소비가 유튜브와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OTT 서비스의 보편화로 바뀌었다. 손안의 영화관과 TV 시대가 열리면서 채널 선택의 확장도 비약적이다.

미디어 시청의 자유도가 커진 만큼 오남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디어 문제에 대해서는 필자 역시 어린 시절 9시 어린이에 배에 참석해야 하는데 8시부터 방영되던 ‘은하철도 999’의 유혹으로 고민했던 기억이 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중간고사가 시작되는 데도 눈을 뗄 수 없었던 ‘주말의 영화’는 영화가 미래를 준비하는 데 해롭다는 인식을 하게 했다.

현시점에서 미디어를 분별 있게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어떤 미디어 콘텐츠는 영원히 금식해야 할 정도로 유해하고 부정적인 잔상을 남기기도 한다.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자극적인 콘텐츠들로 인하여 진리를 전하는 프로그램들의 경쟁력을 고민해야 하는 세태도 걱정스럽다. 오늘날처럼 영상을 손쉽게 접하게 된 현실에서 미디어를 선용할 방법은 없을까?

15년 전, ‘영화 설교’로 주목받았던 하정완 목사님의 세미나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다. 영화를 사례처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친근하게 전달하는 모습에 감동했다. 영화는 인간의 경험을 압축적으로 전달하는 힘이 있어서 특정 이슈를 다룰 때 좋은 자료가 되고, 무엇보다 사례 활용에서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없다. 그리고 삶을 깊이 들여다보게 하고, 넓은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나는 먼저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극복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들을 찾아서 필자가 담당하는 사회복지 전공 교육에 도입해 보기로 했다. 2012년부터 ‘영화로 보는 사회복지’ 과목을 개설했다.

발달장애인 아들과 소통하기 위해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활용하는 가족드라마 ‘인생을 애니메이션처럼’, 출생신고도 하지 못한 채 아동노동과 조혼의 고통에 시달리는 아이들의 삶을 조명한 ‘가버나움’, 심각한 알코올중독에서 벗어나려 애쓰는 아내와 도울 방법을 몰라 괴로워하는 남편의 이야기 ‘남자가 사랑할 때(1994)’ 등의 영화들을 소개하면서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동체적 노력을 함께 이야기했다.

학생들의 반응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200여 명으로 시작했던 강의가 매해 1천여 명의 수강생을 받게 되었다. ‘딱딱한 지식이 아

닌 삶의 이야기로 다가오니 매주 수업이 기다려진다”, “영화 감상과 해석이 단순한 학습을 넘어 나 자신을 성장하게 해주는 것 같다”, “영화 속 이야기를 현실 문제에 대입하니 이해하기 쉬웠다” 등의 피드백을 보면서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흥미가 높아지고, 지식과 현실을 연결해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가는 피드백은 “스토리 중심으로만 보던 영화를 이제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관점의 변화였다.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수많은 영상물, 나아가 우리 삶의 많은 순간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미디어 콘텐츠의 활용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이 든다.

온누리세계관학교(OWA)에서 이 경험을 나누던 중에 이번 온누리세계관학교 심화과정 특강으로 영화를 복음의 관점으로 보는 방법을 요청받았다. 필자는 어린 시절 시청했던 ‘주말의 영화’에서부터 최근 넷플릭스를 통해 본 영화들까지 떠올리며 예수님과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영화들을 탐색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처럼 예수님의 삶을 직접적으로 다룬 영화도 있고, 딸을 잃은 상실감과 죄책감 그리고 분노로 무너진 아버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치유되어 가는 여정을 그린 ‘오두막’,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 조신인을 섬긴 선교사의 이야기 ‘서서평, 서서히 평온하게’와 같은 감동적인 영화들도 있었다.

명시적으로 기독교 계열의 영화로 보이지 않더라도 용서와 희생, 대속과 같은 성경적 원리와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있는 영화들도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복음적일 수도,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누군가가 활용해 주기를 기다리는 영상들도 있었다. 이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좋은 영상에 대한 분별력이 높아지고, 예수님을 대화의 중심에 모시는 새로운 방법을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온누리세계관학교 강의에서는 불운한 여성의 삶으로 묘사되었던 ‘테스’와 언뜻 보기에는 폭력성 짙은 액션영화에 불과한 ‘루퍼’ 두편을 준비했다. ‘테스’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찾는 시간에 대해서, ‘루퍼’를 통해서는 사랑과 정의가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 성취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나누고자 한다. 이 기회를 통해서 온 누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자 기도하는 온누리교회의 미디어 선교를 확장하는 새로운 방법을 함께 생각해보기를 기도한다.



정상원 집사
(강남C공동체, 온누리세계관학교)

특별기고

우리가 너무 정치적인가?

대통령 선거는 민주적 참여와 시민적 의무의 정점으로 여겨진다. 역사적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의 투표율은 중간선거 기간(유권자의 약 40%)의 약 1.5배(유권자의 약 60%)에 달한다. 최근 몇 년 동안 투표율은 대선과 중간선거 모두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이 문제 해결과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에 의존하는 동시에 다른 쪽을 불신하는 경향이 커질수록 이러한 수치는 더 높아질 것이다. 특히 요즘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정치 참여는 기독교인들에게 특히 어려운 일이다. 이 땅의 기독교인은 비기독교인에 비해 정치 참여와 투표율이 높은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정치적 우파에 속한 기독교인들에게만 종종 ‘기독교 민족주의’라고 비난한다. 많은 데이터에 따르면, 실제로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이 보수적인 기독교인들보다 더 정치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이 “너무 정치적으로 변했다”고 비난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확실히 정치와 신앙의 혼동은 정치권의 양

쪽과 교단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많은 ‘혼잡물’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2021년, 정치학자이자 통계학자인 라이언 버지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공화당과의 연관성 때문에 복음주의자라는 라벨에 끌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많은 사람이 정기적으로 교회를 다니지도 않고, 기독교 교리에 대한 진정한 애착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버지의 말처럼 복음주의자라는 의미가 근본적으로 재구성되고 있는 또 다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우리의 광범위한 문화는 정치적 열기로 인해 많은 부분이 재구성되고 있다. 시민들은 물론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특히 크리스천은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는 방법으로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반면 정치가 문화 공간에서 너무 많은 공기를 빨아들이는 것은 좋지 않다. 현재 정치는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문화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크리스천에게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확신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있도록 부르셨다. 그분은 우리를 이 문화적 순간에 두시기로 선택하셨다(〈사도행전〉 17장 참조). 삶의 모든 영역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다고 보는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정치는 부풀려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축소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다른 부분을 정치에 포함하지 않으면서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는 시민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성의 시민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에 따라 자치적으로 살기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할 때 모든 문제에 관해 법이나 대법원 판결, 관료적 기관이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도성에서 최고의 시민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다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 가치관을 형성하고, 투표를 형성한다. 법치주의든, 태아 보호든 우

리가 우선순위를 두는 이슈는 정치적 함의를 지닌 도덕적 문제이지 그 반대는 아니다. 이러한 가치를 옹호하는 것은 (최근 필자가 그랬던 것처럼) 기독교 민족주의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욕설이나 경멸에 신경을 써서는 안 되며, 투표가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모든 것을 잃을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는 선거철이 아닐 때 그 열기가 최고조에 달해야 한다. 우리 시대의 정치적 압박을 완화하는 유일한 방법은 삶의 정치보다 우선하는 측면, 특히 가정과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다. 우리가 자녀와 이웃, 지역사회를 잘 돌보면 국가가 나서지 않아도 된다. 물론 정부가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고 가까이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 존 스톤스트리트, 재러드 헤이든
원문: breakpoint(20241002)

‘입양위탁주일’을 보내며

“고아들의 든든한 울타리”

보육원 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돕는 ‘울타리사역팀’



오창화 집사
(울타리사역팀장)

해외입양인이 자신을 낳아준 생모를 찾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한 다큐멘터리를 시청했다. 보육원(당시에는 고아원)과 입양기관을 찾아가 자신의 출생 비밀을 찾는 영상이었다. 안타깝게도 그

해외입양인은 생모와 생부를 찾을 수 없었고, 슬픈 얼굴로 자신이 성장한 국가로 돌아가는 모습에 나도 함께 울었다. 며칠 뒤 보육원을 퇴소한 한 청년이 나에게 해외입양인 영상을 봤냐고 물었다. 내 슬픈 느낌을 나누었더니 돌아온 청년의 말이 충격이었다.

“한국 사람들은 해외입양인이 자신의 생모를 찾지 못하는 장면을 보고 함께 슬퍼하면서 보육원을 퇴소한 고아들이 자신의 생모를 찾지 못하는 것에는 이토록 무관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청년은 자신들도 출생 비밀을 알고 싶고, 생모를 찾고 싶어서 수많은 노력을 했는데, 많은 해외입양인처럼 생모와 생부의 정보를 찾는 게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자신들을 더 슬프게 하는 것은 해외입양인들은 입양해 주신 부모가 있고, 대부분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행복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생모를 찾지 못하는 것은 슬퍼하면서, 고아로 보육원을 퇴소한 자신들은 부모도 없고, 가정을 이룰 힘도 없고, 사회적 편견이 너무 커서 고아라는 배경을 숨기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

서는 누구도 함께 슬퍼하며 관심을 주지 않는다고 했다. 그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서 ‘보육원 퇴소생’ 또는 ‘자립준비청년’으로 불리는 청년들의 외로움과 어려움, 슬픔에 대해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알게 되었다.

유일한 해답, 유일한 소망

어려서 해외입양된 이들은 한국에 대한 기억도, 연고도 전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8세 이상 나이에 해외로 입양된 이들은 보육원과 그곳의 친구들을 기억한다. 그들이 성인이 돼 한국을 방문하고, 자신들과 함께 보육원에서 자란 친구들을 다시 만나면서 그들이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인지한다. 그들이 모여서 2016년 ‘LBTO(Love Beyond The Orphanage)’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매년 장학생을 선발해 대한민국의 자립준비청년들을 지원한다. 모임 초창기부터 통역 및 해외입양인과 자립준비청년들의 가정체험을 담당했던 우리 가정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LBTO 장학생들의 명절 행사를 직접 주관했고, 덕분에 많은 청년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들의 깊은 아픔을 알게 되었다.

여러 이유로 ‘원가정에서 분리된 아동들’ 대부분은 입양도, 가정위탁도 되지 못하고 있다. 입양할 가정도, 위탁할 가정도 대상 아동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동 대부분이 보육 시설에서 18세 또는 24세까지 양육되고 사회로 나온다.

고아들의 외로움과 두려움, 슬픔을 누가 도울 수 있을까?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다. 감사하게도 온누리교회와 이재훈 위임목사님의

지원으로 2021년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본부에서 ‘울타리사역팀’이라는 이름으로 고아사역을 시작했다.

울타리사역팀에서는 18세 미만의 보육원 아동들을 돌보는 ‘열린울타리’ (‘가정의 문을 열어 주세요’라는 뜻)와 18세 이상 30세 미만의 자립준비청년들과 동행하는 ‘푸른울타리’ 사역을 하고 있다. 열린울타리사역은 각 보육원 원장님의 허락하에 1박2일 외박 프로그램, 당일 소풍 프로그램, 영어, 수학, 음악, 그림 등 학습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 18가정이 고아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 현재 보육원에 있는 1만여 명의 아동들 모두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결연되기를 기도한다. 매월 아동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그들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

푸른울타리사역은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월 1회 정기예배 참석과 월 1회 멘토와의 일대일 만남을 요청한다. 그 요청을 완수한 청년들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작년에 청년 26명을 지원했는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진행한 청년들과의 인터뷰에서 무려 18명이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라고 고백했다. 할렐루야!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울타리사역팀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올해는 장학생 30명을 선발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본부에서 직접 지원받는 재정의 3배 이상의 헌금을 모금해야 청년들과 약속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 청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일대일로 동행해 주실 멘토들도 찾아야 한다. 소망하는 것은 청년 30명이

아니라 100명을 모으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찬양팀을 꾸리고, 복음 사역자로 세우고, 전도자와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기를 바란다.

온누리교회 울타리사역을 섬기는 우리는 참으로 미약하고 미미하다. 우리에게는 상처 많은 그들을 온전히 가족처럼 품을 능력도, 사랑으로 양육할 능력도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타리사역이 능력이 있는 것은 그들에게 진정한 아빠가 누구인지 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보육원에서는 아동들의 종교 자유를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예배가 거의 불가능하고, 보육원을 퇴소한 청년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주일에도 아르바이트 하느라 바쁘다.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그들이 당했던 ‘원가정 분리의 아픔’을 풀어 줘야 하고, 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곁에 있어 줘야 한다. 무엇보다 ‘고아의 영’에 묶인 그들에게 유일한 해답,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 아با임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알려줘야 한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고아를 돌봐 달라”고 수백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간절한 부탁에 부답이 있다면 온누리교회 고아사역을 담당하는 ‘제이홈’과 ‘울타리’ 사역에 동참하기를 소망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조그마한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있을 것이다. 고아를 돌보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바의 이름을 높일 것이다.

문의: 02-3215-3434

후원: 하나은행 573-910020-36505
(온누리교회 온누리울타리)

입양, 그 가슴 벅찬 행복!



김영석 집사
(제이홈사역팀장)

첫째 아들을 낳고 살면서 입양에 대한 어떤 선한 영향력이나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 같은 동기가 없었다. 막연하게 딸을 키우고 싶다는 단순하고 이기적인 욕심에 입양을 처음 생각했다. 아들을 키우는 동안 잠시 잊

혔던 그 생각이 어느덧 다시 고개를 들었고, 아내에게 “우리 둘째로 딸 입양은 어때?”라고 무심코 말을 건넸다. 이 말이 씨앗이 되었는지 가끔 나오는 입양 관련 프로그램을 지나치지 않았고, 시간이 더 흘러서 아내가 남몰래 미혼모

를 후원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내도 마음으로 입양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어렵듯이 느꼈던 것 같다.

아내가 직장을 그만둔 지 1년쯤 되었을까? 경제적으로 빠듯하던 시절 하필 하나님이 아내에게 “지금 뭐하는 거니? 숙제 준 거 얼른 해라”는 마음을 주셨다. 아내는 그 숙제가 ‘입양’임을 단번에 알아차렸다고 했다. 첫째를 낳고 7년이 되던 해,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그다음 날, 아내와 나는 망설임 없이 입양을 신청했다. 딸 아이 입양은 통상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아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불과 4개월 만에 사랑스러운 딸 나염이를 만났다. 아이를 처음 만나러 가는 날(입양 절차 중 하나로 ‘선보기’라고 한다), 아내와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니 어떤 아이든 감사

또 하나의 아름다운 복음적 삶

히 맞이하자’고 다짐했다. 그날의 설렘과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의 벅찬 감격, 그 기쁨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순간으로 남아있다.

그 이후 온누리교회에 입양가족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나염이에게 친구들을 만들어 줄 수 있겠다’는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참석했다. 그렇게 참석한 ‘제이홈’에서 하나님이 나의 다소 철없던 입양 동기를 넘어 고아와 과부를 향한 깊고 따뜻한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입양의 참된 의미를 배우게 하셨다.

제이홈을 섬기면서 생각보다 많은 가정, 특히 믿음의 가정들이 입양과 위탁을 마음에 품고 고민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래서 이 지면을 빌려 잠시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자 한다. 모세의 이야기를 모두 알 것이다. 죽음의 위기에서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에 띄워져야 했

던 아기 모세, 아들을 강에 띄워 떠나보내야만 했던 어미 요게벳의 찢어지는 심정을 하나님이 깊이 공감하셨다. 하나님이 바로의 딸에게 모세가 ‘입양’ 되게 하시면서 그의 생명을 건지셨고, 그를 통해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다. 이처럼 입양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사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사랑으로 입양돼 하나님의 자녀 된 존재들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 놀라운 사랑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는 그 사랑을 가장 깊이 체험한 증인들이다. 부모가 필요한 한 아이에게 따뜻한 엄마와 아빠가 되는 것은 우리가 먼저 받은 이 넘치는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복음적 삶 아닐까? 부디 모든 성도가 용기내 이 가슴 벅찬 행복에 동참하길 권한다.

캠퍼스 전도집회 ‘희망노트’

명지대, 연세대, 육군사관학교 2천 2백여 명 긍정반응

대학생들을 위한 전도집회 ‘희망노트’(이하 희망노트)가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4일까지 명지대학교, 연세대학교, 육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됐다. 명지대학교 학생 1,250여 명, 연세대학교 학생 2,500여 명, 육군사관학교 생도 및 교직원 1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희망노트에서는 최성민 목사, 유성하 목사, 오현교 목사, 이진기 목사가 설교했다. 명지대학교 학생 1,000, 연세대학교 학생 1,084명, 육군사관학교 생도 및 교직원 106명이 복음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며 결신서를 제출했다.

최종성 학생(연세대학교)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 노력했지만 어떻게



지난 4월 연세대에서 열린 ‘희망노트’.

해야 행복한지를 몰랐는데, 희망노트가 ‘예수 안에서 사랑하며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려줬다”고 고백했다. / 김현준 기자

한일청년연합집회 ‘The Way’

7월 4~5일 일본 요코하마

한일청년연합집회 ‘The Way’가 오는 7월 4일(금)과 5일(토) 일본 요코하마 사카에 공회당과 혼고다이 그리스도교회에서 열린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전 4:9)를 주제로 진행된다. The Way 관동위원회가 주최하고, 온누리교회 러브소나타팀과 대학청년부가 협찬한다.

7월 4일 요코하마 사카에 공회당에서 ‘The Way 집회’를, 7월 5일 혼

고다이 그리스도교회에서 ‘YUME Confemce’를 개최한다. 이서진 목사, 사기사가 타이지 목사가 설교한다. ‘YUME Confemce’에서는 패럴토의, 소그룹 웨어링, 레크리에이션, 팀 발표, 집회 등이 이어진다. 참가를 희망하는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소속 청년들은 이메일(2myo0@naver.com)이나 전화(02-3215-3759)로 신청하면 된다.

“가정의 따스함을 나눠주세요!”

5월 17~18일 ‘입양위탁주일’ 행사

5월 17일(토)과 18일(일)은 ‘입양위탁주일’이다. “고아를 돌보라”는 〈야고보서〉 말씀을 실천하는 사회 선교본부 제이홉사역팀(입양위탁커뮤니티)과 울타리사역팀(보육원아동 결연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에서 입양위탁행사를 개최한다. 서빙고온누리교회 로비에서 입

양위탁안내 및 보육원아동 결연과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고아사역 소개와 입양 및 위탁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관련 기사 8면〉. SNS청년부와 여호수아청년부 예배에서는 입양가족들이 간증한다.

문의: 02-3215-3434

교회여, AI로 미래를 준비하라!

5월 26~27일 ‘2025 풍당 미디어 콘퍼런스(FMC25)’

‘2025 풍당 미디어 콘퍼런스(FMC25)’가 5월 26일(월)과 27일(화) 스위스 그랜드 호텔 서울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교회여, AI로 미래를 준비하라!’를 주제로 급변하는 AI 시대에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이재훈 위임목사, 김덕진 소장(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유혁 교수(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Gloo AI 최고책임자 스틸 빌링스(Steele Bullings)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강의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기독교 OTT ‘풍당’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10만 원. 온누리교회 성도와 CGN 후원자는 참가비 50%를 할인해 준다.

문의: 02-3275-9372

〈청소년 일대일제자양육〉출간

기초편(1권) 4월 발행, 성장편(2권) 5월 발행

일대일통합사역팀에서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교재에 이어 〈청소년 일대일제자양육〉을 출간했다. 청소년을 위한 교재 출간은 모든 세대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면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청소년 일대일제자양육〉교재는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해서 1권 기초편(4월 출판)과 2권 성장편(5월 출판)으로

구분해 두 권으로 출간했다. 청소년 일대일제자양육은 일대일제자양육 양육자반을 수료한 부모나 조부모, 교사나 성도들이 할 수 있다. 교재는 두란노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일대일통합사역팀에서는 양육을 돕기 위해 ‘청소년 이해를 위한 특강’을 개설할 예정이다. 특강 일정은 추후 공지한다.

문의: 010-3005-4605

김용성 현대성화전 ‘아름다우신 예수’

6월 8일까지 온누리아트갤러리에 전시

온누리아트비전에서 외부 작가 초대전을 하고 있다. 6월 8일(일)까지 김용성 성화작가의 현대성화전 ‘아름다우신 예수’가 이어진다. 온누리아트갤러리(온누리청소년센터

2층 카페 옆)에서 관람할 수 있다. ‘섬김’, ‘주 나의 목자’ 등 작품 20여 점이 전시되어 있다.

문의: 010-2321-6494

이주민과 함께하는 연합 바자회!

5월 18일 오전 9시 안산M센터 주차장

온누리M미션에서 이주민과 함께하는 연합 바자회 ‘2025 All Nations Market’을 개최한다. 5월 18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안산M센터 주차장에서 열린다. 수익금은 온누리M센터 여름 아웃리치 및 수련회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온누리M미션이 지난 5월 11일(일)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정

을 위한 국악콘서트 ‘하하호호’를 개최했다. 문재숙 권사(국가무형유산 가야금산조 및 병장 보유자)와 예가희 단원들이 공연했다. 온누리M센터 소속 이주민, 사역자, 봉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문의: 031-491-9650

후원: 하나은행 573-910010-57804(온누리M센터)

‘LOVE DIVE 춘천행 청춘열차’ 참가자 모집

5월 31일 토요일 춘천에서 팀별 자유 여행

크리스천 청년들을 위한 결혼가정 문화세미나 ‘LOVE DIVE’에서 ‘춘천행 청춘열차’ 참가자를 모집한다. ‘LOVE DIVE 춘천행 청춘열차’행사는 5월 31일(토) 정오부터 저녁 10시까지 이어진다. 참가자들은 오후 12시 용산역에서 집결해서 12시 58분 춘천행 기차를 탄다. 20대 크리스천 청년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기존 결혼가정문화세미나 ‘

LOVE DIVE’ 1~3회 참석자도 신청할 수 있다. 선착순 40명을 모집한다. 회비는 3만 원. 참가신청은 QR 코드로 하면 된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교역자들이 동행해서 멘토링을 제공하고, 조별 미션 등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다.

문의: 010-9090-6746

/ 홍하영 기자



서울 프로비던스 스쿨 2차 설명회

5월 20일 오전 10시 온누리청소년센터 소극장

성경적 세계관으로 운영하는 국제대한학교 ‘서울 프로비던스 스쿨’(Seoul Providence School) 2차 설명회가 열린다. 5월 20일 오전 10시 온누리청소년센터 소극장에서 진행된다. 5~8학년 학부모가 대상이다. 서울 프로비던스 스쿨의 환경과 시설, 커리큘럼 등을 소개한다.

서울 프로비던스 스쿨은 그리스

도 중심의 기독교교육과 우수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향후 미국 ACSI(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International)가 발급하는 3~4년 과정의 정식 인가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고등학교 과정은 2026년 개설될 예정이다.

문의: admissions@seoulprovidence.org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우측 QR 코드를 찍으면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청춘클래스 12기 참가자 모집

‘청춘클래스’ 12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6월 14일(토)과 21일(토) 오후 12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여의도 정곡빌딩 4층에서 진행된다. 결혼 적령기 크리스천 미혼 청년이 대상이다. 총 60명(남자 30명, 여자 30명)을 모집한다.

참가를 원하는 크리스천 미혼 청년은 5월 18일(일)까지 온라인 신청 링크(QR 참고)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회비는 7만 원(양일 식사 포함). 선정된 참가자에게는 개별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준다.

문의: 네이버 카페 ‘청춘클래스’(cafe.naver.com/youthclass)



양재 하나님의가정훈련 학교 참가자 모집

양재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6월 7일(토)부터 6월 29일(일)까지 1, 2주 차 매주 토요일, 3, 4주 차 토~일(1박 2일) Acts29비전빌리지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5월 31일(토)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가정당 40만 원(자녀당 7만 원)이다.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에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준 높은 행복에 이르는 부부와 가정으로의 성장을 돕는다.문의: 010-4427-5025

〈생명의 삶〉QT 프리뷰(Preview)

QR 코드를 찍으면 5월 셋째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생명의 삶〉정기구독 신청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장로칼럼



조청구 장로
(성동광진공동체)

“오월은 금방 찬물로 세수를 한 스물한 살 청신한 얼굴이다. 하얀 손가락에 끼어 있는 비취가락지다.” 시인 피천득은 오월을 청년에 비유하여 이렇게 노래했다. 강렬한 햇살보다 눈이 부시게 하는 것이 오월의 ‘푸르름’이다. 파란빛을 뿜어내지는 않지만, 초록의 대자연의 바라보면 그 푸르름에 눈이 부신다. 차가운 기운이 가시고, 한낮 뜨거움이 오기 전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오월의 푸르름이 참 좋다. 실록의 계절은 어두운 새벽이 밝은 아침으로, 검고 칙칙한 옷차림이 밝고 화사함으로 가벼워진다. 동녘 하늘의 아침 해를 가리던 미세먼지도 잠잠해지고, 온 세상이 푸르름으로 가득해

반가운 것은 서로가 ‘희망의 끈을 놓지 말라’는 자연의 선물이다.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오월을 가장 반기는 건 어린이날 선물 받을 기대에 찬 아이들 같지만, 오월의 소중함을 알고 푸르른 매 순간을 즐기게 되는 나이는 중년 이후가 아닌가 싶다. 오월은 생명의 계절, 아직 성장할 시간이 남았다는 징후이고, 늙음과 죽음의 잠시나마 잊게 되는 환상의 시간이다. 그렇지만 시간은 흘러간다. 청춘이 영원하지 않듯이 오월도 찰나에 불과하다. 그래서 피천득은 “내 나이를 세어 무엇하리. 나는 지금 오월 속에 있다. 연한 녹색은 내날이 변져 가고 있다. 어느덧 짙어지고 말 것이다. 머문 듯 가는 것이 세월인 것을. 유월이 되면 원숙한 여인같이 녹음이 우거지리라”고 했다. 대자연의 숲에서 ‘쉼’을 갖는 것은 삶과 믿음의 열정을 충전하는 시간이다. 자갈밭 길을

생명의 계절 오월은

굴러가는 쇠바퀴처럼 요란한 세상 속에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다. 마음을 쉬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들숨’, 이어 ‘날숨’도 곁죽이 쉬어 보고, ‘새우 숨’에서 ‘고래 숨’으로 바꾸어도 보는 거다. 고즈넉한 숲속 길을 느린 걸음으로 걸어보고, 꽃길과 물길을 따라 시간의 정원으로 잠잠히 들어가 보는 거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연을 주신 축복이고, 믿음 안에 사는 즐거움이다.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사랑으로 물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세상과 교회를 새롭게 하라는 주님의 인도하심이다. 인생을 나무에 비간다면 지난날 내가 살아야 할 삶은 나무의 뿌리와 동치와 줄기와 가지를 만들어 가는 의무와 책임에 따른 삶이었다. 하지만 이제부터 내가 살고 싶은 삶은 그 나무에 잎새를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다. 시인 정지용이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살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빈 밭에 밤바람 소리가 말을 달리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사는 거다. 김소월이 ‘곡산에서 개여울을 바라보고 약산에 올라 진달래꽃이 피고 개여울에 잔물이 해적였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사는 거다. 인생에는 각자에게 맞는 때가 있다. 자신이 장미가 아니라고 슬퍼할 게 아니라 민들레든 나팔꽃이든 자신의 때에 맞게 활짝 피어나는 거다.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나’란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오늘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목청껏 찬양하며 주 안에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이다. 자연에서 쉼을 얻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복된 인생길이 되기를 축원한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시 145:10).

일대일 동반자반 수료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 서빙고 ■ 가정사역 김성언 안준선 김은실 이경숙 김혜미 정명현 김혜숙 채지인 모지혜 김리나 민아래 김미란 송은탁 주수일 한병성 이 암 ■ 강서 권은정 이지영 박지혜 김미현 장재희 박윤희 조해수 최지현 ■ 고양은평 구현모 서승욱 김용성 이진원 박지다 계문순 이연경 조현선 전현희 정기숙 최원천 정재호 황소영 최선희 ■ 관악금천 곽민정 박영희 곽우용 손현석 박윤정 신수일 이소영 이현주 이은진 이은진 장미라 이은실 최동주 김경희 ■ 남대문로방 박미자 김민숙 양명성 박은태 염영남 서선교 홍현의 박은태 ■ 노원 사영미 임용자 유화실 어용자 ■ 동대문중앙 이명진 정순영 이상환 임희창 ■ 동작 김유리나 박승희 박한영 이종형 왕지애 양인영 이새롬 장영주 이재욱 장성우 이찬규 이문환 한은숙 이은숙 ■ 마포	권오중 임수현 김지나 김주연 마경난 최여임 문지은 이현숙 박채현 류지철 양소정 손영임 염윤경 신혜운 이미애 이양숙 이진현 이규배 표지형 김소정 ■ 복누리 선여심 박애란 안지향 김성희 채시원 정환민 ■ 서대문 조경래 원중희 ■ 서빙고 박철준 이종형 ■ 성동광진 김경목 정영준 김진해 장창근 김효미 정승숙 박경남 장복순 이상희 한희정 임영수 박정준 조미희 이영미 조하영 김선호 ■ 성북 김영신 최지점 박성근 김등용 최영순 박명화 홍경희 김영구 ■ 신용산 김근수 김남윤 박환성 김태운 이종현 윤수민 정홍철 장한웅 황선애 문명욱 ■ 양천 김하경 김정자 남금향 권성숙 신동안 정영성 ■ 여의도 차해련 안현남 홍진영 박은화 ■ 영등포구로 백은식 김명호 장지선 김민아 조미영 최미경 지명신 이혜숙 ■ OCC	■ 용산 김은숙 김상임 민경은 이정민 방 산 이영선 이성민 임지희 황경순 홍현순 ■ 이수 박정란 조현욱 배정환 강희근 손성민 오혜신 유태형 신강현 이계진 김선희 이원복 홍준영 현시백 홍준영 ■ 이촌 강희정 김현숙 김광용 문 찬 민경숙 장혜성 서보경 권미경 심재용 김병호 안인자 김지영 염보미 정하니 오대양 이정현 이영현 신동필 이지은 정의진 하준서 한필규 ■ 일산파주 김상원 이상구 박종영 김명상 윤수현 김은석 이혜현 김명숙 최은정 심은하 ■ 중종로 김경일 이정숙 김학식 손원민 박경은 하은진 ■ 특별한초대 오은빈 우주희 ■ 한강 이기태 정진호 이원석 한경식 ■ 한터 박윤희 황다경 ■ 공동체없음 김세영 김의경 김진홍 이동렬 장보윤 김민아 조현정 김양희 최고은 양연정 황해림 신혜원 ■ 강남A 강승민 김안강 강현길 임현우 김아름 송민이 김예서 전해민 김주현 이경화 김준희 한상임 김혜진 김혜진 송금수 남세진 유혜영 한상임 이광숙 남수경 이세훈 김형일 조유경 김 양 주대권 심규혁 ■ 강남B 김진우 김동철 김현주 안연숙 박정원 오창수 석현수 김경훈 이주영 김은경 이하늘 정광진 장은영 박소영 홍민정 이지현 ■ 강남C 김나영 하인열 김나정 권연주 김명숙 남정이 김영은 박정원 김윤미 송정미 나종희 조미영 배정희 김미주 서연주 권정임 양윤정 김소희 우상기 이경영 이수연 홍은영 장 원 김명택 조진선 권정임 채연웅 이종권 최정운 김은욱 한경혜 정영옥 ■ 강남D 강민성 윤상우 김동웅 박상돈 김 신 이정욱 류정호 한규석 ■ 강남E 강현석 남준상 김소정 박영숙 서연주 이윤정 이은희 최연숙 이재학 김창원 전종학 이수완 채송이 서수정 ■ 경기A 김현주 백은영 안형준 김병길 양정일 이창훈 우지수 안은영 이명희 김미라 최훈기 유형용 ■ 과천의왕 김도윤 김수복 김정희 김지명 박은주 권은숙 오동권 김상기 판혜원 김난수 ■ 도곡 김경태 김태문 이경원 이강신 임정화 오연석 정유림 임혜녀 양진환 황의서 주정하 신일숙 황미영 김정순 ■ 분당A 김은오 김미정 김재철 이기우 박영자 홍경미 신진아 김인향 온민선 김미림 이화창 한복규 임유미 김정순 황성희 변호숙 ■ 분당B 김인희 심우정 김진화 전기영 오지원 이명숙 ■ 서초A 이동희 김문정 장지은 문자영 최재우 최태형 ■ 서초B	강규봉 김지혜 김미정 김재희 김소영 어은경 양아름 현우정 이수형 유철준 정규석 윤기식 최지수 권문숙 ■ 서초C 박서현 홍인영 송성현 이진영 윤미라 김선민 홍 경 박명희 ■ 서초D 권혜민 최은영 김초은 송신혜 나지은 호성희 남형권 박도형 이슬아 김정은 정주영 곡일정 ■ 송파A 김세종 이명동 김현철 주우현 박철우 조영수 ■ 송파B 김혜민 조우영 민성원 이수현 유병철 박승우 유철하 정해일 이현기 김동원 현정아 류미숙 ■ 양재A 강경록 정지채 김태림 이소정 동 전 정경환 서형덕 박현규 이광진 한성빈 장지은 김금순 진대환 김시용 최은정 우혜경 최정숙 이영선 ■ 양재B 박용환 노군수 최규일 조선호 ■ 푸른누리 김판수 고상진 송현숙 서형원 안광일 이병후 오재은 표은정 유은아 김연정 ■ 프랑스어 김송미 송하영 ■ 여호수아 고건호 김선규 김광진 송병민 김민준 방성준 김선홍 이기성 김연정 김소영 김은지 정은희 김중화 김성은 김지수 송애영 박미르 고미경 박수현 최혜정 박예민 안혜준 박은선 이종숙 박지현 정은실 ■ 특별한초대 김철진 최성진 ■ 하나 김예찬 윤원식 김준철 전입분 최예승 강혜옥 ■ 공동체 없음 김종문 조주태 김호정 김주연 심예찬 김주현 이종민 조현공 ■ Bridge33+ 김일주 박미선 양성진 황정민 이진선 임은영 이효영 정희섭 조민희 김지연 최원후 송승환 홍영복 이상현 ■ Harmony 김대수 유재경 ■ Point5 박종빈 홍바울 유소영 박은숙 윤소희 윤세영 이 은 정현주 정현우 이동창 ■ 대청 ■ 갈렙 국지환 조성호 김재윤 김현정 임재민 한선웅 주현준 노지준 ■ 양재A 강경록 정지채 김태림 이소정 동 전 정경환 서형덕 박현규 이광진 한성빈 장지은 김금순 진대환 김시용 최은정 우혜경 최정숙 이영선 ■ 양재B 박용환 노군수 최규일 조선호 ■ 푸른누리 김판수 고상진 송현숙 서형원 안광일 이병후 오재은 표은정 유은아 김연정 ■ 프랑스어 김송미 송하영 ■ 여호수아 고건호 김선규 김광진 송병민 김민준 방성준 김선홍 이기성 김연정 김소영 김은지 정은희 김중화 김성은 김지수 송애영 박미르 고미경 박수현 최혜정 박예민 안혜준 박은선 이종숙 박지현 정은실 ■ 여호수아 김정민 한재희 정우주 안지영 정희원 박주선 조미지 한혜경 조하희 정경숙 주하은 홍수화 최신혁 박진성 최진영 김의석 ■ 허브 강지민 이신아 김민기 이동창 김민주 송현진 김서현 이윤신 김현진 이지현 박상현 이종환 방형철 이호림 오민우 김정열 이정호 유헌용 이하린 최자영 임동현 김정옥 임유진 강민경 ■ 공동체 없음 박영인 권지원 ■ J4U 라혜수 박경은 안유준 신동면 이경미 고인영 이재은 김지영 임그린 명재은 ■ Pole2 이세린 김이랑 ■ SNS 강희재 이소연 고은영 박선영	박찬미 이영경 백수진 정은선 서술은 도희선 송예찬 김경학 신상규 이채우 양희영 이복희 원지수 이일한 유예슬 손진아 윤연규 김 희 은수진 나순희 이성광 김승철 이 신 위성규 이윤정 박선영 이준기 홍상현 전민선 김영희 정세빈 한재희 정우주 안지영 정희원 박주선 조미지 한혜경 조하희 정경숙 주하은 홍수화 최신혁 박진성 최진영 김의석 ■ 구자균 이상근 국경아 이경민 김도희 장보원 김동희 왕수용 김미나 강신애 김성엽 박태용 김승겸 이의춘 김예린 이정자 김정호 박정제 김태현 송미자 김현진 이규진 남혜은 한소혜 노영환 이창수 박다혜 김명경 박현정 윤주희 백찬선 윤성용 신화권 조병호 안진실 문소현 오기쁨 김지수 윤하영 김유리 이기쁨 정혜경 이동한 김중제 이범우 김남영 이현진 이영미 이혜선 박한정 이해인 남미영 이호준 한승희 임예나 고영숙 임예진 김명희 임요한 최영섭 장승원 김민정 장유리 안혜준 조영민 임유진 조인환 원종철 조한별 신미영 한다솔 류승희 황창훈 박요셉 ■ W 곽우린 우정완 김지혜 김미경 손혜리 홍승경 안주영 조유리 양건식 유재홍 이재용 조호동 이찬미 박유선 ■ 어린이 ■ 서빙고 홍정옥 홍정옥 김세연 문관희 김하윤 박규현 박다은 최혜정 박이현 유정은 박서한 김민영 송이젤 정은미 엄주연 엄준철 오영훈 이미정 오예석 오세필 유민재 유영우	유지윤 신숙예 이건희 이상옥 유지혁 유정열 윤수아 박정미 이교휘 홍은주 이시하 김주희 이하빈 이정민 이하은 백현미 이하준 이윤규 이효준 우사라 임하윤 임현섭 장한나 장서한 조영호 김지은 최준현 최 훈 황도훈 황진수 황한나 남다린 ■ 양재 강다솔 강동우 고윤주 강수진 김선강 김경희 김수아 김중훈 김예안 강은하 김태은 봉진희 동이준 이신현 박서은 박광훈 박열국 양미화 박태준 노성지 성방현 홍진숙 ■ 수원	송한유 송창희 유승우 장유진 유지혁 유정열 윤수아 박정미 이교휘 홍은주 이시하 김주희 이하빈 이정민 이하은 백현미 이하준 이윤규 이효준 우사라 임하윤 임현섭 장한나 장서한 조영호 김지은 최준현 최 훈 황도훈 황진수 황한나 남다린 ■ 부천 강성은 김은정 노현빈 박계연 류승주 이경희 박하진 박지영 안주영 안선혜 이우주 이상태 이은서 김정원 이정윤 정명진 임동윤 강동원 장세연 김선자 장하연 안희선 황예은 박지영 ■ 수원	강태균 배미정 고지안 김민선 김동윤 김기훈 박건우 한정화 박은준 박대근 박은혜 권미정 방다임 방호주 방서윤 차예승 방하임 김기순 손지훈 동지영 유하은 정현희 유호준 김선희 윤서원 김예은 윤성진 윤종로 이윤희 이재성 임지율 민예원 장서현 조현진 장하울 조정인 조시운 강세나 차시원 성나영 ■ 대전 김강건 라현숙 김소윤 이지희 김예슬 이수정 김윤찬 김상만 박예성 강슬비 송하울 김수정 이준규 김선경	조은찬 조영삼 ■ 남양주 이다인 정성호 ■ 평택 강은찬 김지현 김시안 박정희 김하진 김원섭 박윤슬 박세환 박지유 한상미 이서림 오승아 이하민 계나나 ■ 인천 강은지 송현리 이주원 이근우 최주원 서유주 ■ 강동 박제희 신현정 조예인 김연아 ■ 서산 김기명 김리라								



나는
조선을 사랑하는
일본인 선교사입니다

무명

無名

6월 25일 롯데시네마 단독 개봉

제작 CGN 배급 커넥트픽처스 내레이션 하정우 12세 이상 관람가

세상의 방법과 다른 선교미디어, CGN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에 맞선 다윗처럼, CGN은 '복음', '용서', '사랑'을 들고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갑니다. CGN 20주년 특집 다큐영화 <무명(無名)>을 위해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CGN 후원 하나은행 573-910002-67804 (온누리선교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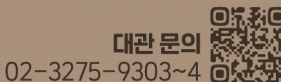


영화 소개

<무명(無名)> 단체 대관 안내

전국 롯데시네마에서 '영화와 함께 드리는 특별한 예배'의 시간을 신청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관 문의

02-3275-9303~4